중세고지독어 강변화동사의 유추동화 고찰*

정정권(인천대)

1. 머리말

현대독일어에서 형태론적으로 동사를 분류할 때는 일반적으로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로 나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동사를 분류할 때는 약변화동사와 강변화동사로 나눈다. 즉 규칙동사란 약변화동사를 말하며, 불규칙동사란 강변화동사와 그 외 기타 동사들을 말한다. 강변화동사는 인구어에서 전래된 것으로 시제어간들이 어근음절의 상이한 모음교체단계에 의해 구별되는 모음교체동사(nhd. greifen - griff - gegriffen), 과거형이 중복법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 중복법동사(nhd. halten - hielt - gehalten)와 과거형이 중복법과 어근음절의 모음교체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중복법-모음교체동사(nhd. lassen - ließ - gelassen)의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중복법동사와 중복법-모음교체동사는 극소수이고 모음교체동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강변화동사를 모음교체동사라고도 한다.[1]

오늘날 독일어의 동사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세 기본형, 즉 부정형, 과거, 과거분사이지만 인구어에서부터 중세고지독어까지는 네 기본형이 있었으며, 이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2]

1) 부정형, 직설법현재와 원망법(접속법)[3]현재의 어간모음
2) 직설법과거 단수 1인칭과 3인칭의 어간모음
3) 직설법과거 복수와 원망법(접속법)과거의 어간모음
4) 과거분사의 어간모음

---

* 본 연구는 2001학년도 인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구체적인 모음교체동사에 대해선 Schmidt(1984: S. 175f.), Schweikle(1986: §14), Paul (1989: §28ff.), 양응주(1986: §19)를 보라.

2) 고대고지독어와 중세고지독어의 직설법 단수 2인칭은 제3기본형을 사용한다.

3) 게르만어 원망법에서 고대고지독어 접속법 과거형으로 발달해 간다. 본 논문에서 접속법은 제외 하기로 한다.

Inf.	Sg. Prät.	Pl. Prät.	Prät. Perf.
idg. *ghréibonom	*gheghróiba	*gheghribmé	*ghribonós
germ. *grîpanan	*gegraipa	*gegripum	*gripanas/z
ahd. grîfan	greif	griffum	gigriffan
mhd. grîfen	grief	griffen	gegriffen
nhd. greifen	griff	(griffen)	gegriffen

이상에서 보았듯이, 강변화동사는 중세고지독어까지 4요형이었다. 그러나 근대고지독어에서 3요형의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강변화동사는 수많은 형태변화와 음운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동사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강변화동사의 음운·형태변화 중 중세고지독어와 근대고지독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유추동화 Analogie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형태론적 관점에서 다음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여 독일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한다.

1) 유추동화란 무엇인가?
2) 중세고지독어와 근대고지독어 강변화동사의 어간음절에서 발생하는 유추동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시제단계별로 인칭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3) 중세고지독어와 근대고지독어 인칭변화어미에서의 유추동화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이점은 무엇인가?

2. 유추동화란?

소장문법학자, 역사문법학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언어학자들은 유추동화에 대한 언어학상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있으나, 이 현상의 특성상 통일된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학자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내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도 다양하다: Analogie, analogischer Wandel, Analogiewirkung, Analogieform, Systemzwang, Formenzwang, Angleichung, Ausgleich, Systemausgleich, analogischer Ausgleich usw.[4)]

Saussure에 의하면 유추동화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른 음운변화와 달리 형태들을 단일화하고, 어형변화와 조어에서는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변화 Veränderung가 아닌 신조어 Neuschöfung라고 했다. 소장문법학자들은 유추동화를 언어발달시 음운변화 외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면서, 언어들을 내적 구조의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변경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신조어 창조의 기저라고 했다.[5] Althaus(1980: S. 552)는 음운변화와 유추동화를 구분하기 위해 고대고지독어 제 2차자음추이를 예로 들었다. 제 2차자음추이는 5~6세기에 상부독일, 즉 오늘날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발생하여 점점 더 북쪽으로 확장되었다. 이 때 중심지 언어였던 상부독일에서의 자음추이는 음운변화이고 발생지 외의 타지역, 즉 북쪽에서 받아들인 상부독어의 음운변화를 유추동화라고 했다. 그리고 Best(1973: S. 10f.)는 유추동화의 정의에 대해 Knobloch(1961), Hermann(1931), Leed(1970~71) 등의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유추동화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아주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음운이나 형태의 조직을 통일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나 범례들을 유추해서 통일시키는 단순화과정의 하나이다. 그리고 유추동화란 구조화된 단어들의 음운, 형태나 의미의 연상적인 변형으로 처음에는 결함이 있지만 언어발달의 기간에 비로소 규범체계 속에 채택되어져 옛날 형태를 배제하는 현상이다.

mhd. binden	band	bunden	gebunden
nhd. binden	band	banden	gebunden[6]
mhd. nëmen	nam	nâmen	genomen
nhd. nehmen	nahm	nahmen	genommen[7]

4) vgl. Paul(1989: §25.c), Frey(1994: S. 96), Best(1973: S. 10), Lewandowski(1979: S. 41), Althaus(1980: S. 552), Bussmann(1983: S. 29). 그러나 Hartweg/Wegera(1989: §8.2)는 Ausgleich와 Angleichung을 구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선 이 용어들을 모두 넓은 의미의 동화로 보고 유추동화라 칭하기로 한다.

5) Lewandowski(1979: S. 41f.)에서 정리 재인용.

6) 중세고지독어 과거복수의 어간모음 u가 과거단수의 어간모음 a에 유추동화되었다.

7) 중세고지독어 과거단수의 어간모음 a가 과거복수형 어간모음 â에 유추동화되었다.

3. 강변화동사의 유추동화

유추동화에 의한 균형화과정은 강변화동사의 형태다양성 때문에 중세고지독어 시대와 근대고지독어 시대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즉 강변화동사의 시제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음교체행렬이 근대고지독어에서 과거단수와 과거복수 사이에 단일화되어 4요형이 3요형으로 되고, 단수와 복수의 어형변화에서도 부분적으로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단순화의 유추동화는 단수에서 복수로, 복수에서 단수로, 부정형에서 변화된 형태로, 1인칭에서 2인칭과 3인칭으로, 그리고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일어난다.

강변화동사의 유추동화는 역사언어학에서는 주로 모음교체행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8]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어간음절에서의 유추동화와 어형변화에서의 유추동화[9]로 나누어 기술하되 필요시엔 모음교체행렬에 따른 기술도 보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3.1. 어간음절의 유추동화

단어와 마찬가지로 강변화동사의 어간도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장에서도 어간모음에서의 유추동화와 어간자음에서의 유추동화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3.1.1. 어간모음의 유추동화

1장에서 보았듯이 중세고지독어의 모든 강변화동사는 모음교체에 의해서 현재부정형, 과거단수형, 과거복수형과 과거분사형의 4단계가 있었으나, 근대고지독어에서는 과거복수형을 제외한 나머지 3요형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중세고지독어와 근대고지독어 강변화동사의 어간모음에서 어

8) vgl. Hartweg/Wegera(1989: S. 127ff.), Mettke(1983: §122ff.), Weddige(1996: S. 51ff.).
9) vgl. Frey(1994: S. 96ff.), Schweikle(1986: S. 34f.).

떠한 유추동화가 발생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3.1.1.1. 과거형의 유추동화

중세고지독어 강변화동사의 과거형은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다.

	Prät. Sg.	Prät. Pl.
mhd.	greif	griffen
	bouc	bugen
	hielt	hielten

이와 같은 중세고지독어 과거단·복수형은 근대고지독어에서 하나의 과거형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형태론적 조건으로 인해 단·복수형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유추동화가 일어난다.

3.1.1.1.1. 단수형이 복수형에 유추동화

mhd. rîten	reit	riten	geriten
nhd. reiten[10]	ritt	ritten	geritten
mhd. nëmen	nam	nâmen	genomen
nhd. nehmen	n*a*hm	n*a*hmen	genommen
mhd. gëben	gap[11]	gâben	gegëben
nhd. gēben	g*â*b	g*â*ben	gegēben

상기 예에서 강변화1급동사 nhd. reiten의 과거단수형 nhd. ritt의 어간모음 i는 mhd. reit의 것이 아니고 과거복수형 nhd. ritten의 모음 i이다. 강변화동사 1급의 과거형은 15세기에 과거복수의 어간모음이 과거단수로 침투하기 시작하

10) mhd. î > nhd. ei(vgl. Mettke 1983: §27, 양응주 1985: §82.1).
11) mhd. p < ahd. b는 Auslautverhärtung이다(vgl. Mettke 1983: §68).

여 17세기 경에 종결되었으며, 이 현상은 슈바벤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변화동사 4급과 5급의 nhd. nahm과 gâb도 역시 mhd. nam과 gap의 단모음 a가 아니고 과거복수형 nahmen(< mhd. nâmen)과 gâben(< mhd. gâben)의 장모음 â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과거단수형 어간모음은 과거복수형에 유추동화되어 오늘날의 형태가 되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1급동사 전부와 과거형이 과거분사형 모음 o에 유추동화되는 동사(z.B. kommen, scheren, dreschen, bewegen usw.)를 제외한 4급과 5급의 동사, 그리고 예외로 3급동사인 werden, schinden이 있다.[12]

mhd. wërden	ward/wurde	wurden	geworden
nhd. werden	*wu*rde	*wu*rden	geworden
mhd. schinden	schand	schunden	geschunden
nhd. schinden	sch*u*nd/schindete	sch*u*nden	geschunden[13]

3.1.1.1.2. 복수형이 단수형에 유추동화

mhd. biegen	bouc	bugen	gebogen
nhd. biegen	b*ô*g[14]	b*ô*gen	gebogen
mhd. hëlfen	half	hulfen	geholfen
nhd. helfen	h*a*lf	h*a*lfen	geholfen

강변화동사2급에서 과거복수형이 과거단수형에 유추동화되는 현상은 서중부독어와 튀링엔어에서 발생하여 14·5세기에 중부독일어권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며, 17세기 초에는 상부독일어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강변화동사2급

12) vgl. Mettke(1983: §124), Hartweg/Wegera(1989: S. 128), Frey(1994: S. 97).

13) 근대고지독어에서 werden의 과거형은 wurde가 사용되나 기동동사로 사용될 때는 아직도 ward가 사용되며, nhd. schinden의 과거형은 일반적으로 약변화하고 과거분사형은 강변화 한다.

14) mhd. ou > nhd. ô/o(vgl. Paul 1989: §79, Mettke 1983: §17, 25, Weddige 2001: S. 37f.).

의 nhd. sieden만은 유일하게 과거형이 과거분사형에 유추동화된다.[15] 강변화동사3급의 유추동화현상은 15세기에 초기근대고지독어에서, 특히 서상부독일어에서 과거단수형 어간모음 a로 통일되지만, 동상부독어와 중부독어는 과거복수형 어간모음 u(z.B. frühnhd. sprung, stund, schwumm usw.)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점차 과거단수의 어간모음 a로 균형화된다. 그러나 어간말음이 mm과 ll로 끝나는 일부 동사와 nhd. schmelzen, melken의 과거형은 과거분사형에 유추동화되고,[16] 이미 앞 장에서 보았듯이 nhd. werden과 schinden도 단수형이 복수형에 유추동화된다.

상기 예의 mhd. hëlfen은 초기근대고지독어에서 과거형 어간모음이 지역에 따라 a, o, u로 많은 혼란을 일으키다가 근대고지독어에서 a로 통일된다. 이로 인해 강변화동사3급의 접속법 과거형은 아직도 중세고지독어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mhd. hëlfen	half	hulfen	geholfen
fnhd. helfen	half	halfen	geholfen
	hulf	hulfen	gehulfen
	holf	holfen	geholfen
nhd. helfen	half	halfen	geholfen

Konj. Prät.: ahd. hulfi > mhd. hülfe > nhd. hülfe
ahd. sturbi > mhd. stürbe > nhd. stürbe

3.1.1.1.3. 단수2인칭이 단수1, 3인칭에 유추동화

mhd. ich/er half	du hülfest
nhd. ich/er half	du halfst[17]
mhd. ich/er nam	du næmest
nhd. ich/er nahm	du nahmst

15) 본 논문 3.1.1.3을 보라.
16) vgl. 양응주(1986: §92).
17) mhd. -est > nhd. -st(vgl. Paul 1989: §52ff., 양응주 1985: §69.2).

중세고지독어 강변화동사 직설법 과거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인구어 시제 구성에 근거하고 있다. 즉 과거단수 1인칭과 3인칭은 어근모음의 완전단계를, 이 밖의 인칭들은 소멸단계(모음교체행렬 1~3급)와 확장단계(모음교체행렬 4, 5급)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과거단수 1인칭과 3인칭은 인칭어미가 없으나 단수 2인칭은 인칭어미 e를 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간모음에 변모음이 일어났다. 중세고지독어까지 직설법 과거단수형은 1, 3인칭과 2인칭이 서로 다른 어간모음을 지니다가 15세기 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유추동화로 근대고지독어시대 초기에 비로소 2인칭이 1, 3인칭으로 통일되었다.[18]

3.1.1.2. 현재형의 유추동화

초기근대고지독어에서 동사의 형태조직을 통일하기 위해서 직설법현재 단수 1인칭어간을 부정형어간에 일치시키고, 단수 2인칭과 3인칭 어간도 1인칭 어간에 일치시켰다. 즉 다양한 동사의 어간을 부정형어간에 통일시켜 동사의 사용을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했다. 이 밖에도 단수형이 복수형에 유추동화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통일이 있었다.

3.1.1.2.1. 단수1인칭이 부정형에 유추동화

중세고지독어에서 부정형 어근모음 ë나 ie를 갖는 강변화동사들은 직설법 단수현재형에서 i나 iu로 교체된다(ë > i, ie > iu).

mhd. nëmen	ich *nime*
	du *nimest*
	er *nimet*
mhd. giezen	ich *giuze*
	du *giuzest*
	er *giuzet*

18) vgl. Penzl(1984: §130f.), de Boor(1984: §127), Frey(1994: S. 98), Mettke(1983: §118ff.), Hartweg/Wegera(1989: S. 129).

중세고지독어에서 ë와 i의 교체는 강변화동사3급b(z.B. hëlfen usw.), 4급(z.B. nëmen usw.)과 5급(z.B. gëben usw.)의 특징이며, ie와 iu의 교체는 강변화동사2급(z.B. giezen usw.)의 특징이다. 근대고지독어에서 강변화동사3급b와 4, 5급 부정형의 e는 직설법 단수2인칭과 3인칭을 제외한 모든 현재형태의 어간모음이고, 이와 반대로 강변화동사2급의 어간모음 ie는 모든 현재형태의 어간모음이다.[19]

nhd. nehmen	ich nehme	wir nehmen
	du nimmst	ihr nehmt
	er nimmt	sie nehmen
nhd. gießen	ich gieße	wir gießen
	du gießt	ihr gießt
	er gießt	sie gießen

이로 인해 nhd. sein동사와 화법동사 일부를 제외한 근대고지독어 강변화동사의 직설법현재 단수1인칭은 모두 부정형 어간모음과 일치한다.

mhd. gëben	ich gibe
nhd. geben	ich gebe
mhd. bieten	ich biute
nhd. bieten	ich biete

3.1.1.2.2. 단수2, 3인칭이 부정형에 유추동화

중세고지독어와 초기근대고지독어에서 후속음절에 e(< i)가 오는 경우 어근모음 a는 변모음하여 e가 되므로 직설법현재 단수 2인칭과 3인칭의 어근모음은 e다.[20]

---

19) vgl. Paul(1989: §242), Mettke(1983: §121), Frey(1994: S. 98), Hartweg/ Wegera(1989: S. 128).

20) ahd. a > mhd. e(vgl. Kienle 1969: §28, Weddige 2001: S. 38, 양응주 1991: §44).

mhd. graben	varn[21]
ich grabe	vare
du grebest	verst
er grebet	vert

변모음에 의한 현재 단수 2인칭과 3인칭의 mhd. e는 근대고지독어에서 부정형의 어간모음이나 단수 1인칭 어간모음 a에 준하여 ä로 기록한다.

mhd. graben	du grebest	er grebet
nhd. graben	du gräbst	er gräbt
mhd. varn	du verst	er vert
nhd. fahren	du fährst	er fährt

3.1.1.2.3. 단수형이 복수형에 유추동화

강변화4급동사인 mhd. komen(< ahd. quëman) "kommen"의 현재 단수형태는 지역에 따라 아주 다양하지만, mhd. u < ahd. ui(ahd. quimu > mhd. kume)로 단수형은 mhd. kume, kumest, kumet가 가장 세력을 떨쳤으며, 복수형은 mhd. o < ahd. uë(ahd. quëman > mhd. komen)로 wir komen이다.

mhd. Inf. komen(kömen, quëmen, kumen)		
ich kume	kome	köme
du kumest/kümest	komst	kömst
er kumet/kümet	komt	kömt
wir komen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양했던 중세고지독어 직설법 단수현재형의 어간모음 u는 점차 복수(부정형)어간모음 o에 유추동화되어 nhd. kommen이 되었다.

---

21) mhd. -en > -n(vgl. Paul 1989: §53.b), 240).

mhd. ich kume	du kumest	er kumet	wir komen
nhd. ich k*o*mme	du k*o*mmst	er k*o*mmt	wir k*o*mmen[22]

3.1.1.2.4. 부정형이 과거형에 유추동화

mhd. bërn	barn	bârn	geborn
nhd. gebären	gebār	gebāren	geboren

강변화4급동사로 이미 소멸된 mhd. bërn의 접두사조어인 nhd. gebären의 부정형 어간모음은 nhd. e대신 ä다. 이 ä는 과거형 어간모음 ā의 유추동화다.

3.1.1.2.5. 복수1, 2인칭이 복수3인칭에 유추동화

Mhd. sîn "sein"의 직설법현재 복수1인칭과 2인칭은 b-형태와 s-형태가 공존하다가 13세기에 b-형태는 점차 사용되지 않고 s-형태가 널리 통용되었으며, 복수 1인칭과 2인칭의 s-형태는 복수3인칭에 유추동화되었다.[23]

mhd. wir birn, sîn	ihr birt, sît	sie sint
nhd. wir *s*ind	ihr *s*eid	sie *s*ind

3.1.1.3. 과거형이 과거분사형에 유추동화

mhd. sieden	sôt	suten	gesoten
nhd. sieden	sott	s*o*tten	ges*o*tten[24]
mhd. klimmen	klamm	klummen	geklummen
nhd. klimmen	kl*o*mm	kl*o*mmen	gekl*o*mmen[25]

22) vgl. Paul(1989: §248.A.1), Mettke(1983: §125), Frey(1994: S. 98), Sütterlin(1924: S. 408).
23) vgl. Mettke(1983: §142), Schweikle(1986: S. 177), Paul (1989: §282).
24) mhd. t > nhd. tt(vgl. Paul 1989: §99, Kienle 1969: S. 245).
25) mhd. u > nhd. o(vgl. Mettke 1983: §23.2).

mhd. lèschen	lasch	lâschen	geloschen
nhd. löschen[26]	losch	loschen	geloschen

여기에 속하는 동사들의 특징은 초기근대고지독어에서 과거형이 많은 혼란을 겪다가 dreschen을 제외한 모든 동사들이 근대고지독어에서 약변화동사로 되었거나 강·약변화형이 공존하는 동사들이며, 이 동사들은 과거형이 과거분사형에 유추동화된 것이다.

3.1.2. 어간자음의 유추동화

중세고지독어 강변화동사의 어간음절 자음조직 안에서의 유추동화현상은 문법교체, 즉 Verner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자음교체다. 문법교체란 고대고지독어와 중세고지독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구어의 강세 때문에 무성마찰음과 유성마찰음이 서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강변화동사의 현재부정형과 직설법 과거단수형은 무성마찰음이 쓰인 반면, 직설법 과거복수와 과거분사형은 유성마찰음이 쓰였다.[27] 그러나 근대고지독어에서 직설법 과거단·복수형 상호간에, 그리고 부정형이 과거형에 유추동화되어 어간의 자음이 균형화되었다.

3.1.2.1. 과거복수형이 과거단수형에 유추동화

mhd. lesen	las	laren/lasen	geleren[28]/gelesen
nhd. lesen	las	lasen	gelesen

중세고지독어 과거복수형 mhd. laren의 어간자음 r가 과거단수형의 어간자음 s에 유추동화되어 nhd. lasen이 되었다.

---

26) mhd. e > nhd. ö(vgl. Mettke 1983: §31.1, Paul 1989: §48.1).
27) vgl. Paul(1989: §92f.), Kienle(1969: §74), Hennings(2003: §1.2.4), 정정권(1997: §2.1).
28) 근대고지독어에 드물게 보존되어 있다(z.B. Gelehrter, vgl. Frey 1994: S. 99).

3.1.2.2. 과거단수형이 과거복수형에 유추동화

mhd. ziehen	zôch[29]	zugen	gezogen
nhd. ziehen	zog	zogen	gezogen
mhd. snîden	sneit[30]	sniten	gesniten
nhd. schneiden[31]	schnitt	schnitten	geschnitten

중세고지독어 과거단수형 mhd. zôch와 sneit의 ch(< ahd. h)와 t(< ahd. d)가 과거복수형 g와 tt에 유추동화되어 nhd. zog, schnitt가 되었다.

3.1.2.3. 현재부정형과 과거단수형이 과거복수형에 유추동화

mhd. vriesen	vrôs	vruren	gevroren
nhd. frieren[32]	fror	froren[33]	gefroren

문법교체로 인해 현재부정형 mhd. vriesen과 과거단수형 mhd. vrōs의 어간자음 s가 과거복수형(과거분사형) 어간자음 r에 유추동화되어 nhd. frieren, fror가 되었다.

3.1.2.3. 현재부정형이 과거복수형에 유추동화

mhd. heffen/heven	huop[34]	huoben	haben
nhd. heben	hob	hoben	gehoben

29) mhd. ch < ahd. h(vgl. Mettke 1983: §68).
30) mhd. t < ahd. d는 말음경화현상이다(vgl. a,a,O.).
31) mhd. sn- > nhd. schn-(vgl. ibid., §50.2, 양응주 1986: §86).
32) mhd. v > nhd. f(vgl. Paul 1989: §131, Mettke 1983: §44).
33) mhd. u > nhd. o(vgl. de Boor 1984: §46, Mettke 1983: §23.2).
34) ahd. b > mhd. p(vgl. ibid., §68), mhd. uo > nhd. o(vgl. Paul 1989: §34, Penzl 1969: §57.3, 정정권 1982: §IV.3).

mhd. slahen	sluoc	sluogen	geslagen
nhd. schlagen[35]	schlug[36]	schlugen	geschlagen

문법교체에 따라 mhd. heffen과 mhd. slahen의 부정형어간자음 f와 h가 과거복수형의 어간자음 b와 g에 유추동화되었다.

한편 중세고지독어 자음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음경화현상으로 인해 무성음(p, t, k)이었던 것이 근대고지독어에서 유성음(b, d, g)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일종의 유추동화로 보는 학자도 있다.[37] 즉 강변화동사의 과거단수형 자음이 과거복수형 자음에 균형화되었다.

mhd. geben	gap	gâben	gegeben
nhd. geben	ga*b*	ga*b*en	gegeben
mhd. binden	bant	bunden	gebunden
nhd. binden	ban*d*	ban*d*en	gebunden
mhd. sehen	sach	sâhen	gesehen
nhd. sehen	sa*h*	sa*h*en	gesehen

3.2. 인칭변화어미에서의 유추동화

독일어 강변화동사의 인칭어미가 어떻게 변천하여 오늘날의 형태가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35) mhd. sl- > nhd. schl-(vgl. Mettke 1983: §50.2).

36) mhd. c(< ahd. h) > nhd. g(vgl. Mettke 1983: §68).

37) vgl. Paul(1989: §100), Schweikle(1986: S. 35), Hartweg/ Wegera(1989: S. 128).

현재:

		직설법			접속법		
		ahd.	mhd.	nhd.	ahd.	mhd.	nhd.
Sg.	1.	-u	-e	-e	-e	-e	-e
	2.	-is(t)	-(e)st	-st	-ēs(t)	-est	-est
	3.	-it	-(e)t	-t	-e	-e	-e
Pl.	1.	-amēs	-en	-en	-ēm	-en	-en
	2.	-et	-(e)t	-t	-ēt	-et	-et
	3.	-ant	-ent	-en	-ēn	-en	-en

과거:

		직설법			접속법		
		ahd.	mhd.	nhd.	ahd.	mhd.	nhd..
Sg.	1.	-	-	-	-i	-e	-e
	2.	-i	-e	-st	-īs(t)	-es(t)	-est
	3.	-	-	-	-i	-e	-e
Pl	1.	-um	-en	-en	-īn	-en	-en
	2.	-ut	-et	-t	-īt	-et	-et
	3.	-un	-en	-en	-īn	-en	-en

우리는 상기 도표에서 특이하게 변천한 동사의 인칭어미, 즉 고대고지독어의 어미형태와 근대고지독어의 어미형태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Nhd. nehmen동사를 예로 들어 이 현상들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a) 직설법 현재 복수 1인칭어미는 ahd. -amês > mhd., nhd. -en이다.

frühahd. nam-emês > ahd. nem-em > mhd. nem-en > nhd. nehm-en

초기고대고지독어 복수 1인칭어미 -emês는 9세기 고대고지독어에서 접속법 현재 복수 1인칭어미 -em에 유추동화되었다가 10세기 후반 중세고지독어에서 -en으로 축소되어 오늘날의 형태가 되었다.[38]

38) vgl. Frey(1994: S. 99), Kienle(1969: §241).

b) 직설법 현재 복수 3인칭어미는 ahd. -ant > mhd. -ent > nhd. -en이다.

ahd. nem-ant > frühmhd. nem-ent > mhd. nem-en > nhd. nehm-en

Ahd. -ant는 어미가 약화되어 frühmhd. -ent가 되었으나 후기중세고지독어에서 복수 1인칭어미의 유추동화로 -t가 탈락되어 오늘날의 어미 -en이 되었다. 동프랑켄어와 바이에른어에서는 15세기에, 중부독어에서는 보다 더 일찌기 동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대고지독어에서 복수 1인칭과 3인칭은 부정형과 동일한 어미를 갖게 되었다.[39]

c) 근대고지독어 단수 2인칭의 특징인 -st의 유추동화: 앞 도표에서 보았듯이 nhd. -st는 직설법과 접속법 현재와 과거의 인칭어미다. 어떻게 해서 2격의 어미는 모두 -st일까? 원래는 직설법 단수 2인칭만 -st였다.

ahd. nim-is > nim-ist > mhd. nim-est > nhd. nimm-st

초기근대고지독어 단수 2인칭어미 -st(< germ. -e-zi < idg. *-é-si)는 9세기 이래로 프랑켄지방에서 -ist와 공존했으며, 10세기엔 알레만, 바이에른에서도 사용되다가 Notker에 이르러 완전히 -ist로 되었다. Ahd. -ist에서의 -t는 인칭대명사 단수 2인칭 thu/du의 전접에 의한 것이다(z.B. ahd. giloubistu > giloubist, weistu > weist, bistu > bist usw.).[40]

접속법 단수 2인칭어미는

idg. *-ois > germ. *-ais, got. -ais > ahd. -ês[41]

---

39) vgl. Paul(1989: §240.A4), Hartweg/Wegera(1989: §8.2.5), Kienle(1969: §248), Mettke (1983: §121.2.a).

40) vgl. Hartweg/Wegera(1989: §8.2.6), de Boor(1984: §123), Kienle(1969: S. 283, 291). 직설법 현재 단수3인칭의 어미 -t라는 학설도 있으나 상기 학설이 유력하다.

41) idg. ai/oi > germ. ai > ahd. ê(vgl. Schweikle 1986: §15, Horacek 1958: S. 32, Penzl 1975: S. 145).

이나 중세고지독어에서 직설법 단수 2인칭어미에 유추동화되어 mhd. -est가 되었다.

ahd. nem-ês > nem-êst > mhd. nem-est > nhd. nehm-est

이 직설법/접속법 단수 2인칭 현재로부터 직설법 단수 2인칭 과거로 확장된다.

ahd. nâm-i > frühmhd. næm-e > mhd. næm-est > nhd. nahm-st

직설법 과거 단수 2인칭어미는 15~6세기 중세고지독어시대 중부독어지역에서 직설법과 접속법 현재형의 어미를 유추하여 사용하다가 독일 전지역으로 확장되어 오늘날의 -st가 되었다.[42]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법 과거형은 후기중세고지독어에서 직설법 과거 단수 2인칭에 유추동화되어 -est가 되었다.

ahd. nâm-is > mhd. næm-est > nhd. nähm-est[43]

지금까지 강변화동사의 유추동화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이 밖에도 부정형과 과거분사의 유추동화를 들 수 있다. 중부독어, 특히 튀링엔어와 동프랑켄어에서는 드물지만 부정형의 어미 -en에서 -n이 탈락한 동사들(z.B. Inf. nëme = nëmen usw.)도 있었으나 -en으로 통일되었으며, 초기근대고지독어에선 18세기 까지도 완료상의 동사들은 ge-가 없는 과거분사형(z.B. brochen, bunden, bissen usw.)을 사용했으나 결국 과거분사의 전철 ge-를 지닌 오늘날의 형태로 통일되었다.[44]

---

42) vgl. Paul(1989: §240.A7), Hartweg/Wegera(1989: §8.2.7), Kienle(1969: §259), Mettke (1983: §121.2b)).

43) ahd. â > mhd. æ > nhd. ä(vgl. Paul 1989: §71).

44) vgl. Hartweg/Wegera(1989: §8.2.8).

4. 결론

유추동화란 음이나 형태의 체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나 범례를 유추해서 통일시키는 단순화과정의 하나이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통일된 정의와 학설은 없다. 이것은 다만 학자들마다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내려지고 정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이 유추동화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여 정리하였다. 이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유추동화의 정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 제3장에서는 유추동화의 균형화과정은 중세고지독어에서부터 근대고지독어까지 강변화동사의 체계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유추동화 유형을 동사의 어간음절과 인칭변화어미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어간음절에서의 유추동화는 모음체계와 자음체계로 분류 고찰해 보았다.

강변화동사의 어간음절 모음조직 안에서의 유추동화는 중세고지독어까지 4요형이던 동사가 근대고지독어에서 과거의 단·복수가 하나로 되어 3요형이 되기 때문에 주로 과거 단·복수형 상호간에 유추동화가 발생했다(z.B. nhd. reiten, bieten usw.).

어간음절 자음조직에서의 유추동화는 문법교체, 즉 Verner법칙에 의해 생겨난 자음교체로 3요형 상호간에 발생했다(z.B. nhd. lesen, schneiden usw.).

강변화동사 인칭변화 어미의 유추동화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1) 직설법 현재 복수 1인칭어미가 고대고지독어에서 접속법 현재 복수 1인칭어미에 유추동화되었다.

frühahd. *nam-emês* > ahd. *nem-em* > mhd. *nem-en* > nhd. nehm-en

2) 직설법 현재 복수 3인칭의 어미가 중세고지독어에서 직설법 복수 1인칭어미에 유추동화되었다.

ahd. *nem-ant* > frühmhd. *nem-ent* > mhd. nem-en > nhd. nehm-en

3) 직설법/접속법의 현재와 과거의 단수 2인칭어미는 모두 -st다. 원래는 직설법 현재 단수 2인칭만 고대고지독어에서 -st였는데 이에 유추동화되어 고대고지독어에서 접속법 현재 단수 2인칭어미가 -st로 되고, 직설법과 접속법 과거 단수 2인칭도 중세고지독어에서 이것들에 유추동화되어 모든 2인칭어미는 -st로 통일되었다.

이상 중세고지독어 강변화동사의 유추동화를 역사적으로 분석·고찰하여 정리해 보았다. 언어발달사에서 유추동화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형태의 다양성 때문에 아직도 통일된 정의와 학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속히 통일된 학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본 연구가 앞으로 독어독문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양응주 (1991): 독어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정정권 (1982): "heben"동사의 형태상의 문제점 고찰. 독일문학 제 28집. 한국독어독문학회.

정정권 (1997): 현대독어 불규칙동사 세 기본형의 어간자음 상이성 고찰. 독어교육 제 15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Althaus, H. P./Henne, H./Wiegand, H. E. (1980):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 Tübingen.

Best, K. H. (1973): *Probleme der Analogieforschung.* München.

Boor, H. de/Wisniewski, R. (1984): *Mittelhochdeutsche Grammatik.* Berlin·New York.

Braune, W. (1975): *Althochdeutsche Grammatik.* Tübingen.

Bußmann, H. (1983):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tuttgart.

Frey, E. (1994): *Einführung in die Historische Sprachwissenschaft des Deutschen.* Heidelberg.

Hartweg, F./Wegera, K. P (1989): *Frühneuhochdeutsch.* Tübingen.

Hennings, T. (2003): *Einführung in das Mittelhochdeutsche.* Berlin·New York.

Horacek, B. (1958): *Kleine historische Lautlehre des Deutschen.* Wien.

Kienle, R. von (1969): *Historische Laut- und Formenlehre des Deutschen.* Tübingen.
Lewandowski, T. (1979): *Linguistisches Wörterbuch 1.* Heidelberg.
Mettke, H. (1983): *Mittelhochdeutsche Grammatik.* Leipzig.
Moczygemba, G. (1958): *Das germanische Verbalsystem.* Fürstenfeld.
Paul, H. (1989): *Mittelhochdeutsche Grammatik.* Tübingen.
Penzl, H. (1984): *Frühneuhochdeutsch.* Bern · Frankfurt am Main·Nancy · New York.
Schweikle, W. (1986): *Germanisch-deutsche Sprachgeschichte im Überblick.* Stuttgart.
Seebold, E. (1970): *Vergleichendes und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germanischen starken Verben.* The Hague/Paris.
Sütterlin, L. (1924): *Neuhochdeutsche Grammatik.* München.
Weddige, H. (2001): *Mittelhochdeutsch.* München.
Weinhold, K. (1968): *Kleine mittelhochdeutsche Grammatik.* Wien-Stuttgart.

Zusammenfassung

Eine Untersuchung zum analogischen Ausgleich der starken Verben im Mittelhochdeutschen

Chung, Jeong-Kwon(Incheon Univ.)

Das Forschungsziel dieser Untersuchung ist es, den linguistischen Begriff der Analogie zu definieren, und die auftretenden analogischen Ausgleichsprozesse vom Mittelhochdeutschen zum Neuhochdeutschen und auch im Neuhochdeutschen selbst insbesondere im System der starken Verben vorzuzeigen und zu erklären. Und diese Forschungsergebnisse sind wie folgt.

Außer dem Phonemwandel, der immer das Phonemsystem tangiert, gibt es Lautveränderungen, die auf assoziativer Übertragung von Lautungen aus konkurrierenden sprachlichen Formen beruhen, die sog. Analogiebildungen. Nämlich in der sprachlichen Entwicklung vom Mittelhochdeutschen zum Neuhochdeutschen zeigt sich eine sehr starke innere Tendenz der Sprache, diese durch gesetzmäßigen Lautwandel entstandene Formenvielfalt innerhalb eines Paradigmas zu vereinheitlichen. Das heißt; Analogischer Ausgleich ist als universaller sprachlicher Simplifizierungsprozess zu werten. Diese sprachlichen Ausgleichsprozesse werden als analogischer Ausgleich bzw. paradigmatischer

Ausgleich bezeichnet.

Gemäß der Klassifikation von Frey teile ich auch analogischen Ausgleich in den drei Bereichen ein: a) im Stammsilbenvokalismus b) im Stammsilbenkonsonantismus c) in den Konjugationsendungen.

(a) Analogischer Ausgleich beim Stammsilbenvokalismus:

mhd. rîten	reit	riten	geriten
nhd. reiten	r*i*tt	r*i*tten	geritten
mhd. helfen	half	hulfen	geholfen
nhd. helfen	h*a*lf	h*a*lfen	geholfen
mhd. ich/er half		du hülfe(st)	
nhd. ich/er h*a*lf		du h*a*lfst	
mhd. ich kume	du kumest	er kumet	wir komen
nhd. ich k*o*mme	du k*o*mmst	er k*o*mmt	wir k*o*mmen

(b) Analogischer Ausgleich beim Stammsilbenkonsonantismus:

mhd. lesen	las	laren/lasen	geleren/gelesen
nhd. lesen	la*s*	la*s*en	gelesen
mhd. heffen	huop	huoben	haben
nhd. he*b*en	ho*b*	ho*b*en	gehoben

(c) Analogischer Ausgleich der Konjugationsendungen:

Die Endung der 1. Pers. Pl. Präs. Ind. im Althochdeutschen, -amês wird durch die Endung der 1. Pers. Pl. Präs. Konj., -em ersetzt.

frühahd. wir nem-amês > ahd. wir nem-em > mhd. wir nem-en > nhd. wir nehm-en

Die Endung der 3. Pers. Pl. Präs. Ind. im Mittelhochdeutschen, -ent wird durch die Endung der 1. Pers. Pl. Präs. Ind., -en ersetzt.

ahd. sie nem-ant > frühmhd. sie nem-ent > mhd. sie nem-en > nhd. sie nehm-en

Als Markierung der 2. Pers. Sg. war -st ursprünglich nur in der 2. Pers. Sg. Präs. Ind. vorhanden:

ahd. nim-ist > mhd. nim-est > nhd. nimm-st

Von hier aus breitet es sich aus in die 2. Pers. Sg. Präs. Konj.:

ahd. nem-ês > mhd. nem-est > nhd. nehm-est

Vom Präs. Ind./Konj. breitet sich -st in das Prät. Ind. aus:

ahd. nâm-i > frühmhd. næm-e > mhd. næm-est > nhd. nahm-st

Und schließlich greift es vom Prät. Ind. auch auf den Konj. über:

ahd. nâm-is > mhd. næm-est > nhd. nähm-st

[검색어] 모음교체, 유추동화, 강변화동사
Ablaut, Analogie/Ausgleich, starkes Verb

정정권
402-749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77번지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유럽어문학부 독어독문학전공
jkchung@incheon.ac.kr